

전북 미래 성장 전략 · 투자 환경 공유

전북 7개 시·군·혁신기관 참여 ‘수도권 기업-전북 투자 설명회’ 서울서 개최

‘수도권 기업-전북 투자 설명회 2025’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쿠팡이츠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 7개 시·군 기초단체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혁신 기관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전북도의 산업 비전과 투자 환경을 수도권 기업에 소개하는 데 목

적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 △RE100 기반의 안정적 에너지 환경 △화물 중심인 광역 교통망 등 기업 입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전북도의 미래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북도가 추진 중인 총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현황과 함께, 전북 투자환경 분석, 지역 기업의 성장 사례 등이 발표됐다. 더불어

어 시·군 기초단체와 도내 지원기관이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해 참여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기업들은 한 자리에서 입지, 인센티브, 금융, 정책자금, 수출, 규제자유특구 활용 등 다양한 분야를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결과는 향후 후속 협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은 최근 새만금 개발 가속화, 산

업단지 공급 확대, 항만·공항 인프라 구축 추진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00조 원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핵심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며, 수도권 중견·대기업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후속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조달청 기업 지원 시책 소개 · 지역 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가저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기업 지원 시책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 기업들은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플러스건설 나춘근 대표는 “최근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 기술형 입찰설계평가에 AI 활용 여부를 추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프로그램 도입이 부담스럽다”며 “지역 기업을 위한 AI 프로그램 구매 지원과 관련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주)알에프세미 반재용 대표는 “전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카탈로그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조달청,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지역 편중적 구매 관행 완화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조달예산 배분 개선 △조달 계약 단가 산정 기준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MAS 계약 단가 신속 조정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들이 조달 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업들이 안심하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역 기업들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소외감

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지역 8개 신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전북 지역 8개 신협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ESG 경영 요소를 기반으로 3개 영역·7개 분야·25개 정성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재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전국에서 선정된 91개 신협 중 전북 지역에서만 8개 조합이 이름을 올렸으며, 그중 김제신협은 사회적 책



임 경영부문(4유형)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고창신협과 전주삼천신협은 2년 연속, 전주중산신협은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전주대건신협·온누리신협·전주파티마신협·전주상진신협은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정받으며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을 증명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행정관리역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부조직발전유공포상 전수식’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농촌진흥청은 장관급 25개, 차관급 22개 등 총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관리역량 평가는 정부 업무 자체 평가가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조직·인사·정보화 3개 분야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각 기관의 자체 진단과 함께 외부 전문가 및 소관 부처가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평가 내용의 적절성 △우수사례의 타월성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 주요 지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며 체계적으로 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한 점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지속적인 조직 혁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직원들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탁월한 인재 육성 체계 빛났다

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사)한국 HRD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1995년 제정된 국내 HRD(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인재 육성과 교육체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단은 체계적 인재 육성 시스템과 학습문화 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올해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혁신 인재 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 진단부터 교육·평가·인증까지 연계되는 CDP(경력개발) 로드맵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입직원 입문 교육’, ‘MZ 아카데미’, ‘기획력 아카데미’, ‘코칭 리더십’, ‘신입 지사장 교육’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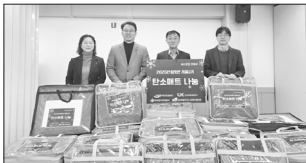
그램을 운영해 변화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신입 직원부터 간부급까지 AI 융합 교육을 확대하며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추진해 온 체계적 인재 육성과 학습문화 혁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난방 취약계층에 탄소매트 기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인근 공공기관과 함께 ‘탄소매트 전달식’을 열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공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처음에는 연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연탄 사용 가구 감소와 탄소 감축 분위기 확산에 맞춰 2023년부터는 친환경 난방기기인 탄소매트를 전달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올해는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한 3개



공공기관이 총 6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전북 지역 취약계층 80가구에 탄소매트를 전달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고향사랑기부제 ·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전북농협은 지난 11일 (사)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최무연)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이 자체 지정 한 ‘고향4당의 날’을 맞아 추진된 것으로, 이정환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최무연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예술훈의 밤’ 행사를 찾은 회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과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북농협은 올해 매월 ‘고향4당의 날’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현장 홍보와 함께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